

복잡심기형 1.6kg 미숙아 수술치료 첫 성공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金容珍교수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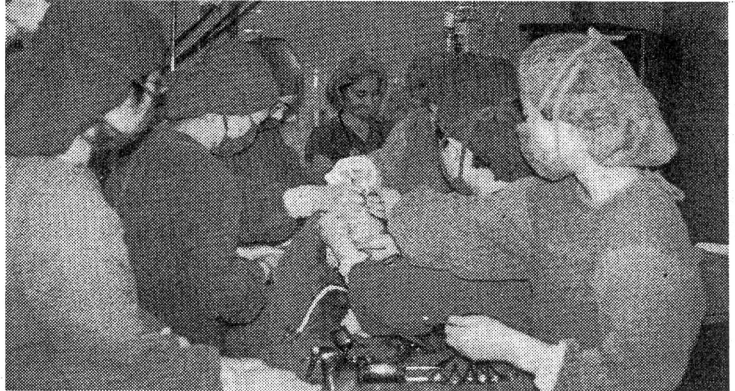
(金容珍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金容珍, 李正烈교수팀은 지난 2일 복잡한 심장기형을 갖

고 태어난 1.6kg 저체중 미숙아를 수술로 살리는 데 첫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중증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미숙아를 수술로 치료하는 것은 성공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아 기피돼 왔으나 이번 서울대병원팀의 수술 성공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金교수팀이 수술한 이 아기(여)는 지난 2월 19일 출생 당시 몸무게가 1.6kg인 초미숙아로 심장검사에서 「대동맥궁차단」이라는 심장질환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질환은 「PGE5」라는 약물을 투여하면 당장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수술로 대동맥을 이어주지 않으면 결국



◇서울대병원 金容珍 교수팀은 체중 2kg미만이면서 중증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미숙아를 수술로 치료하는데 성공, 복잡심기형 미숙아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자료사진)

사망한다.

이 아기는 심장기형으로 인해 심장기능 및 전신의 영양상태가 나빠 몸무게가 줄어드는 등 예후가 극히 불량했다.

金교수팀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심장수술시 심장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조차 정지한 초저체온 상태에서 수술했으며 30~40분 이내에 수술을 마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경이 채 3~4mm가 안되는 대동맥을

연결하고 심장내 동반된 세세한 기형까지 교정했다.

金교수는 「아기가 워낙 작고 고난도의 술기를 요구하는 수술이라 성공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수술 이외에는 살릴 방법이 없어 수술한 것」이라며 「현재 수술한 지 열흘이 지난 아이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심장기능을 돕는 약을 끊었으며 스스로 우유를 먹는 등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